

월요일단

진짜 올레꾼



권재효 시인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제 걷기는 단순한 웰빙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듯하다. 이런 추세에 맞춰 전국 곳곳에 '걷는 길'이 개설되고 있다. 지역마다 '걷는 길'의 명칭도 다양하다. 우리 제주에는 올레, 지리산 쪽으로 가면 지리산 들레길, 대관령에는 대관령길, 문경에는 문경새재길이 있다. 남해의 청산도에 가면 슬로우길이 있다. 앞으로는 '걷는 길'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걷는 길'은 상당히 철학적인 대가 있다. 걸으면서 자신을 성찰해본다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세 유럽의 순례자의 길이 그 시초가

아닌가 한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성야고보 성당까지의 순례길을 말하는데 제주 올레도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작년 가을 스위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도 걷기 열풍이 불고 있었다. 제주 올레와 비슷한 길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경계길'이라 부르고 있었다. 주와 주 사이 경계를 걷는다는 의미이다. 스위스의 각 주는 우리나라의 영·호남만큼이나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갈등의 원인은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다양한데 우선 언어권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어권 등. 종교도 주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데 한 지방이 가톨릭이라면 그 옆의 지역은 신교라는 식이다. 최근에는 도농간 빈부의 격차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다. 이러한 갈등을 융합할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 '주 경계길'이라는 것이다. 제주 올레길 부근의 주민들과 이

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올레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자신의 지역을 찾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친절하게 맞았지만 요즘은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날이 갈수록 피해만 늘어간다는 하소연이었다. 화장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한 두 번이지 여간 성가시지 않다는 것. 올레길 옆의 농작물 피해도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했다. 올레꾼 한 사람이 웃고주 하나를 찢았다고 하자, 그 사람으로서 한 개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루 열명이라면 사정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올레꾼이 버리는 쓰레기는 가뜰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 일거리만 더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됐다 했다. 그래도 올레꾼들이 찾아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잖나고 필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통명스럽게 한 분이 말했다. "올레꾼들이 돈 쓰는 줄 아세요? 김밥 한 줄, 생수 한 병도 다 집에서 준비해 오거나 제주시에서 사오는데요 필." 필자는 위의 예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작년에 청산

도 슬로우길을 걸을 때 그곳 주민들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터라 우리가 새겨들을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레길 걷기를 품격있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올레꾼들이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상생의 원칙이다. 우리가 올레길을 걸으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연을 청정하게 유지 관리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올레꾼들은 혜택을 분반만 지역주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자신이 다시 가져오도록 하자. 제발 농작물에 함부로 손대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생수, 김밥을 준비해 갈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사고 점심도 현지 식당을 이용해 줬으면 한다. 길을 걷다가 주민들이 농산물을 팔면 그것도 하나씩 사주도록 하자. 이 조그만 실천들이 바로 상생의 첫걸음일 것이다. 이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야말로 진짜 올레꾼이 아닐까 한다.

> ... †

세계농업유산 가능성 큰 제주밭담

'제주밭담'은 도내 농경문화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제주인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유산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제주밭담의 총 길이는 3만6000여 km로, 이 가운데 2만2000여km가 밭담이라고 추정한다. 제주 밭담을 '흑룡만리(黑龍萬里)'라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밭담의 역사는 제주농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화산지대란 지역 특성상 산재한 돌무더기를 정리해 농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밭담은 자연스레 형성됐다. 바람과 우마의 침입을 막고 경계를 구분하는데도 밭담은 요긴하게 쓰였다. 이렇듯 밭담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우며 일궈 온 '제주인의 삶' 그 자체였다. 정부가 국가농업유산으로 제주밭담을 지정한 것도 이같은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제주밭담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登載)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신청서 초안도 공개됐다. 이 신청서에는 제주밭담의 다양한 특성과 역사성, 현재의 위협요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6대 전략과 실행계획(액션플랜) 등이 제시돼 있다. 세부 실천과제를 보면 내셔널트러스트(공공신탁) 모델을 도입한 '밭 한평 사기 운동' 전개와 밭담·돌담축제의 상시 개최 등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 시행 및 밭담 보전지역의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등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제주밭담의 보전·관리하는 밭담이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이란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出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밭담은 그 역사성은 물론 바람결을 따른 곡선과 현무암의 검은색 등 미학적(美學的)으로도 세계농업유산 혹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손색이 없다. 지난 70~80년대 두 차례나 제주를 찾았던 '25시'의 세계적인 작가 게오르그는 "도로변의 돌담집과 집을 구획하는 울담, 밭과 밭을 구획하는 밭담 등은 제주만의 명물(名物)"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신청서에 이런 이야기거리를 삽입하는 것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듯 싶다.

반려동물등록제 후속작업 박차를

'반려동물 등록제'가 걸돌고 있다.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시행된지 두 달여에 이르지만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월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담당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토록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제주시 21곳, 서귀포시 3곳 등 모두 24곳에서 전자칩 이식이나 목걸이형 전자태그를 장착해 반려동물로 등록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동시에 분실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동물 수는 한해 평균 10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유기동물들은 대부분 안락사(安樂死) 처분된다. 관리 및 안락사 처분에만도 한해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초기 6개월간 등록비를 면제해 준 덕에 2009년 한 해에만 모두 5251마리에 이르는 개·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등록됐다. 하지만 시행 이듬해인 2010년 20

9마리, 2011년 128마리, 2012년 88마리로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올해 1~2월 사이 88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되는 등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줄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이 도내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은 모두 241마리에 이른다. 개 210마리, 고양이 31마리가 주인을 잃거나 버림을 받았다. 지난해 월평균 140마리에 비해 소폭 줄기는 했지만 여름휴가철에 집중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진일보한 동물복지 정책이다.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내다 버리는 잘못된 세태가 만들어낸 자화상(自畫像)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의 결함과 함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단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등 허술하기 그지없다. 등록대상 자체가 개에 국한되는가 하면 단속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등 개선점이 수도 많다.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등 후속작업에 박차(拍車)를 가해야 한다.

열린마당

농자천하지대본 (農者天下之大本)



문명숙 제주시 오라동민속보존회장

은 줄을 모르고 지낸다고 하신다. 조남 정신이 몸에 배인 것이다. 파부로 느끼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다. 윤리(倫理)와 도덕(道德)이 무너지면 삶이 황폐화되고 범죄가 늘어나듯이, 농업을 지키지 못하면 감당하기 힘든 개방화 시대에 제주 농가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불편한 것과 불만스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소나무 꺾질처럼 거절어진 농업인의 손마디가 오늘날에 우리경제의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업은 많은 삶을 거쳐 마지막으 돌아가고 싶은 '꿈꾸는 삶'이기도 하다. 편하고 쉬운 일만 찾지 때문에 농가에 젊은이가 없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묵묵히 한세월 농사를 지어온 이 땅의 참 일꾼인 제주 농가들, 우리 삶에 가장 든실한 풀뿌리로 제주를 지탱하고 지키고 있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업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근본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ra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detail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branches.

Large advertisement for '제주도 최대/최고의 스크린골프연습장' (Jeju's largest/highest screen golf practice facility).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facility,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제주 GOLF19'.